

여름밤 낭만 '자연의 오케스트라'

귀뚜라미 우는 소리, 풀벌레 날갯짓하는 소리. 여름의 절정을 맞이하는 시점에 '자연의 오케스트라'는 분주하기만 하다. 우거진 녹음이 펼쳐내는 합주에 인간의 소리도 함께 뒤섞인다면 그 느낌은 어떨까.

광주시립합창단이 기획연주회 '여름의 끝자락'을 합창과 함께 오는 25일(오후 7시 30분) 쌍암공원 야외무대에서 펼친다. '음악', '여유', '낭만'의 조화를 모색하는 이번 무대는 야외 공연장에서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방식으로 채워진다.

혼성 합창과 독창, 중창 등 다채로운 합창 레퍼토리를 감상할 수 있다.

먼저 혼성합창 무대는 임현신이 편곡을 맡았으며 김동률 곡 '출발'과 호넛 텔루나 OST '안녕' (곡 중 김원태 솔로 포함)을 연주한다. 또 폴킴의 노래 '모든 날, 모든 순간' (곡 중 유정석 솔로)과 '슈퍼스타' (곡 중 장미화, 손승범 솔로) 등이 울려 퍼진다.

독창 무대도 예정돼 있다. 베이스 김창식이 무대에 올라 핑거소울의 '기억의 향기'를 연주한다. 이 노래는 사랑의 잔향을 다가오는 가을에 빛낸 곡이다. 비올라 연주는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를

광주시립합창단. 25일 쌍암공원 혼성 합창·독창·중창 등 다채

빛고을댄서스·JS뮤지션스 출연

졸업한 뒤 광주시향 상임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양신애가 맡는다.

또 메조소프라노 김혜진은 '시간에 기대어(최진)'를, 소프라노 김은혜는 푸치니의 '오 사랑하느나의 아버지', 테너 정기주는 '오 나의 태양(오솔레미오)'을 부른다.

아울러 소프라노 장미화는 뮤지컬 '마이 페어레이디' OST인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을, 메조소프라노 오지영은 '베사메 무초'를 선보일 예정이다.

혼성 2중창 무대도 눈길을 끈다. 소프라노 윤은주와 바리톤 이형기가 영화 알라딘 OST 'A Whole New World'와 오페라타(음악극) '유쾌한 미망인' 중 '입술은 침묵하고' 등을 부른다. 이외에도 혼성 합창무대 '그리스도 만나볼 수 있다'.



비올라 양신애

웅장한 남성 4중창도 무대를 수놓는다. 한태수의 '아름다운 나라', 롤프 뢰블란의 'Beautiful'을 테너 유

정석, 바리톤 김대성, 손승범, 윤찬성이 들려준다.

한편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빛고을댄서스와 JS뮤지션스그룹이 특별출연해 공연에 풍부함을 더한다. 빛고을댄서스는 혼성 합창 공연에 찬조 출연하며 JS뮤지션스는 영화 '시네마 천국'의 OST 'Childhood and Manhood'와 고전영화 '여인의 향기'의 탱고 명곡 OST '포르 우나 카베사'를 노래한다.

이날 진행은 김두식, 지휘는 이준이 맡는다. 이준 지휘자는 광주대 대학원에서 지휘를 전공했으며 현재 광주시립합창단 부지휘자로 있다. 행사는 광주예술의전당이 주최하며 광주시립합창단이 주관한다.

무료 관람이며 오전 9시 취소. 러닝타임 약 110분.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한적한 일상, 진솔한 서정으로 녹여내다

강진 출신 한종근 시인 '달과 지구 아내와 나' 펴내

본질적으로 시인은 사물에 대한 그리고 사람에 대한 애정이 많은 이들이다. 그러한 관심이 있기에 특정한 단상을 모티브로 시를 쓴다.

강진 출신 한종근 시인이 첫 시집 '달과 지구 아내와 나' (문학들·사진)를 펴냈다.

시인은 담양에서 늙으신 어머니를 봉양하며 살다 현재는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 작품집 제목 '달과 지구 아내와 나'는 한적한 시골에서 아내와 사는 시인의 일상을 환기한다. 진솔한 서정으로 노래하는 시들은 인간과 사물에 대한 시인의 심상을 짐작할 수 있다.

"사과를 갈아서/ 삼베에 발친다// 깨물어 안아픈 손가락 없다고 했는데/ 그 손가락 열 개가/ 사과를 쥐어짜다// 열아홉 소녀 같은/ 하얀 속살의 사과가// 단물 쫄옥 빠지고/ 갈변해/ 쭈그러 망태기로 남는다"

'어머니'라는 시를 읽고 있으면 모든 것을 내어주고 허랑하게 마른 육신으로 남은 우리들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한다. 몸져누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를 향한 화자의 심정은 몽클하면서도 아프다. 고단한 생애를 살아온 한 인간의 역사가 압축적으로 펼쳐지며 동시에 가능할 수 없는 깊이를 생각하게 한다. 시인의 섬세한 감성과 지극한 사랑은 표제시



'달과 지구 아내와 나'라는 작품에서도 느껴진다. "수액인 내게 끌려/ 관을 타고 내려오듯/ 아내에게 끌린 나는/ 그녀 뒤를 맥떡거리고 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짝옥 끌어안는다"

화자와 아내사이의 끈끈한 사랑, 연민 등의 정서와 감성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부부의 정이 무엇인지를 곱씹게 한다.

한편 이효복 시인은 추천사에서 "모성 신화의 신적 공간인 창인당에서 한종근은 안방의 이야기와 앞마다에서 눈에 보이는 풍경을 묘사한다. 신화적 서사의 서정이다"며 "순환의 생명력이 갖는 보편적 이룸이다. 한종근의 시는 우주의 속살이고 삶의 피인 것이다"고 평한다.

한편 한종근 시인은 1980년대 중반 놀이패 '신명'에서 정년기를 보냈으며 전남대 대학원에서 희곡을 공부하다가 시를 쓰기 시작했다. 2020년 '시와문화'로 등단했으며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합창단 단원들의 모습.

<광주시립합창단 제곡>



특별출연 '빛고을댄서스'

국악인 등용문 '대한민국 빛고을 기악대제전'

한국전통문화연구원, 9월 1~3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신진 전통 기악인을 발굴하고 기악 특유의 신명을 느낄 수 있는 '등용문' 격의 대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사)한국전통문화연구원(이사장 황승욱)은 광주시 남구와 '제22회 대한민국 빛고을 기악대제전'을 다음 달 1일부터 3일(오전 9시)까지 총 3일간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펼친다.

본대회는 '관악', '현악', '가야금병창' 부문에

서 경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초·중·고등부 및 대학(신인)부, 단체부와 명인부로 나눠 진행하며, 예선과 본선을 모두 거쳐야 한다.

관악 부문은 대금, 피리, 해금 산조 정악 파트가 있으며 현악은 아쟁, 거문고, 가야금 부문으로 나뉜다. 가야금병창 부문은 창자가 임의 선택한 자유곡을 선보이면 된다.

명인부 대상 수상자는 대통령령과 1500만원

의 상금 및 약기, 동양화를 부상으로 받게 된다. 또 대학부 대상 수상자는 국회의장상과 상금 100만원, 고등부 결선 상위 2명에게 상금 각 100만원과 교육부장관상 및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여한다.

황승욱 이사장은 "이번 대회가 차세대 국악흐름을 선도하는 국악인을 선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대회에서 입상하는 국악 인제들이 국악의 보급 및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접수는 오는 25일(오후 6시)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링크(www.kukak21.com) 참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BIAF 페스티벌 기획상영전 '오늘봄 광주 편'

'오오' '유년의 기억' 등 상영...19일까지 광주독립영화관



영화 '취준생 배리(2018)'의 스틸컷

광주독립영화관GIFT는 19일까지 부천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BIAF) 페스티벌 기획상영전 '오늘봄 광주 편'을 진행한다. BIAF행사 당시 국제경쟁작품 및 단편제작지원작품 부문에서 경쟁한 7개 작품을 상영할 예정이다.

누군가의 쿠키명에서 일어나는 일을 화이트 있게 풀어낸 오서로 작 '오오(2017)', 구름 낀 해변에 방치된 루카스의 이야기를 그린 '할아버지는 바다 코끼리(2017)'를 감상할 수 있다.

차유경 작 '시소(2017)'는 또래친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의 이야기에 주목한 작품이다. 또 루이스 바그넬의 '유년의 기억(2018)'은 외부와 단절된 주인공 에밀리가 세상에 나서는 서사를 담는다.

그밖에도 김상준 작 '바퀴돈다(2019)'와 선 안치의 '취준생 배리(2018)', 현유정의 '서로의 조각(2020)' 등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상영시간은 10분 내외.

관람료 8000원. 디트릭스에서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